

## 외국인노동자 검진을 하면서...

글 | 송용욱(부산지부 행정지원팀)

현재 우리사회에서 '외국인' 이란 단어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몇 해 전에 우연히 시민단체(NGO)로 부터 외국인검진 협조를 부탁 받으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외국인에 대한 선입감. 가장 먼저 피부색과 언어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검진 당일까지 적어도 몇 마디 인사만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안고 검진장으로 갔더랬다. 그런데 막상 만나 보니 그들은 어느 정도 우리말을 할 수 있는 이들이 아닌가? 앞서 고민하던 기억에 피식 웃을 수밖에 없던 기억이 새롭다.

실제로 우리가 실시하는 외국인검진은 이주노동자 검진이다. 이렇게 말하면 누구나 짐작 하리라 생각된다. 우리나라보다 약소국이거나 빈민국에서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합법적으로 왔거나, 아니면 현재 이주노동자 정책에 의해 불법 체류자로 전락한 이들이 대부분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들의 인권옹호를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와 외국인 범죄문제를 빌미로 자국으로 돌려보내지는 양극화된 단체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작금의 우리나라 청년실업문제도 일고 있는 상황에 이들까지 우리가 안고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다소 비판적인 소리도 있다.



몇 해 동안 우리협회에서 외국인 검진을 지속해 오면서 아픈 기억으로 남는 사건이 있다. 그는 합법적으로 취업비자를 취득해 우리나라에 온 필리핀 노동자였다. 지난해 11월 초겨울비가 내리던 저녁에 검진을 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필리핀에서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왔다고 했다.

우리는 별 탈없이 검진을 마치고 기억 속에서 잊고 있었는데 TV에서 외국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우연히 그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사연인 즉 그의 회사는 몇 개월 전에 문을 닫았고 그는 사업주와 직원들이 떠난 텅빈 공장에서 노숙자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인터뷰에서 “왜 떠나지 않고 빈공장에 남아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서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주를 기다린다고 했다.

사실 이주노동자에게 있어서 임금이란 곧 생존이다. 이들은 사랑하는 가족과도 이별하고 이역만 리 머나먼 타향땅에서 우리가 일하기 싫어하는 직종에 종사하면서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면서 돈을 벌고 있다. 한편에서는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적 제약을 이용해 임금과 노동력을 착취하는 업주도 있다.

외국인검진을 실시하면서 '인간의 가치'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된다. 2005년도 11월 프랑스 이주노동자 소요사태가 전세계 매스컴을 강타하면서 세계 각국 및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 정책도 다시 한 번 사회적 이슈가 되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주노동자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그들을 단지 우리보다 못 살고 힘없는 사람들로만 여기지 말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 할 동지로, 온정적 시선으로 바라보았으면 한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도 외국인, 이방인이 아닌 우리사회 구성원의 한 축으로堂堂하게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卍